

## 사제당(思齊堂)과 인토르체타(Intorcetta)의 『중용(中庸)』

엄국화 \*

- 
- I. 들어가는 말
  - II. 『사제편(思齊篇, 1521)』의 구성과 인토르체타의 『중용(1687)』
  - III. 『사제편』 상(上): 『중용』 20장과 「중용장구서」
    - 1. 상편 5장: 『중용』 20장
    - 2. 상편 14장: 「중용장구서」
  - IV. 『사제편』 하(下): 『중용』 12장, 15장, 14장
    - 1. 4편 부부(夫婦): 『중용』 12장과 15장
    - 2. 17편 소환난(素患難): 『중용』 14장
  - V. 나가는 말
-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기묘명현(己卯名賢)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이 1521년에 저술한 『사제편(思齊篇)』에서 인용된 『중용(中庸)』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예수회 선교사 인토르체타(Intorcetta)의 라틴어 『중용』 번역과 비교하여 조선 전기 중용학(中庸學)의 독자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제편』은 남원 사제당에서 후학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경학 교재로, 사서(四書) 가운데 『대학』 구절을 단 한 차례도 인용하지 않은 채 『논어』·『맹자』와 더불

---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goocaa79@gmail.com

어 『중용』의 본문, 그리고 「중용장구서」를 적극적으로 배치한 점에서 군주학(君主學)보다는 군자학(君子學) 중심의 학문 지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글은 먼저 II장에서 『사제편』의 구성과 『중용』 인용 양상을 개관하고, 이를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 번역의 구조와 대조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사제편』 상권의 「위학(爲學)」 편 가운데 『중용』 20장과 「중용장구서」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여, 조선 중용 논변학 전통 속에서 안처순의 위치를 검토한다. IV장에서는 하권의 '부부(夫婦)'와 '소환난(素患難)' 편에 인용된 『중용』 12장·15장·14장을 중심으로, 기묘사람의 삶의 조건과 윤리적 실천 구상이 어떻게 『중용』 텍스트 위에서 재배열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제편』에 나타난 『중용』의 수용이 단순한 교재 편집을 넘어, 조선 전기 사람이 처한 정치적 환난과 도학적 모색을 동시에 반영한 하나의 중용적 시도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중용, 안처순, 사제당, 사제편, 인토르체타

## 1. 들어가는 말

『중용(中庸)』은 『대학(大學)』과 더불어 송대 이후 유학의 경학(經學)에서 위상이 급격히 상승한 텍스트이다. 두 경전의 공통점은 주자(朱子)에 의해 장구(章句) 체제로 재편되었다는 데에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중국은 물론 조선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쟁의 핵심이었다. 『대학』의 경우,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1491-1553)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이후 주자의 장구(章句) 체제에 대한 개정 시도가 본격화되었고, 이후에는 더 나아가 『예기(禮記)』에 실린 이른바 '고문대학(古文大學)'을 저본으로 삼아 주석을 가하려는 시도까지 등장하였다. 『중용』의 경우, 조선 유학자들은 주자의 장구 체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기보다는 크

게 4대지(大旨)과 6대절(大節) 가운데 어느 체계를 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입장이 갈렸다. 동시에 『중용』은 『대학』보다 더 다양한 도설(圖說)들을 활발하게 제작하여 논변학(論辯學)과 더불어 도설학(圖說學)의 양축을 형성했다는 특징을 지닌다.<sup>1)</sup>

이 글에서는 기묘명현(己卯名賢)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의 『사제편(思齊篇)』에 인용된 『중용』 구절들을 분석함으로써, 조선 전기 중용학(中庸學)의 한 단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안처순은 시대적으로 조광조(趙光祖, 1482-1519)와 더불어 기묘사화라는 큰 정치적 격변을 몸소 겪었을 뿐 아니라, 기묘사림 가운데서도 거의 유일하게 독자적인 경학(經學) 저작을 남긴 인물이다. 『사제선생실기(思齊先生實紀)』의 연보에 따르면, 1521년 안처순은 사제당(思齊堂)에서 후학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서 『사제편』을 편찬하였다. 비록 『사제편』을 수록한 『사제선생실기』의 목판 간행은 1820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지만, 실제 저술 시점이 그보다 약 300년 앞선 16세기 초이며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학 교육 교재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제편』은 조선 경학사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시기적으로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와 비교해 보면, 후자가 조선 성리학자들의 『대학』 경학사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장구 개정'의 문제를 제기한 저작이라면,<sup>2)</sup> 안처순의 『사제편』은 사서(四書)의 문장을 폭넓게 선별·편집하면서도 『대학』의 구절은 단 한 개도 인용하지 않고, 오히려 『중용』의 본문과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를 상편 마지막에까지 배치할 정도로 『중용』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 
- 1) 논변학과 도설학의 구분은 『조선조 유학자의 중용읽기』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23쪽 참조.
  - 2) 물론 회재도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를 저술하기도 했지만, 조선 경학사에서는 『대학장구보유』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여기에는 예수회 선교사 인토르체타(Prospero Intorcetta, 1652-1696)의 라틴어 『중용』 번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은, 『사제편』이 『사서집주대전(四書集註大全)』의 치밀한 주석들을 광범위하게 수용하면서도 정작 안처순 자신의 독자적 주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상이한 해석 지평을 통해 보완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이다. 인토르체타는 『중용』을 키케로(Cicero)의 어휘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개념 도식을 동원해 하나의 '건축물'로 구조화하면서, 인간론·귀신론·도론·덕론을 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를 '성(誠)과 성(聖)'의 개념으로 덮어 군자론·군주론·성인론을 수용하는 독특한 독법을 제시하였다. 비록 양자의 사이에는 16세기 조선과 17세기 유럽 그리고 중국 선교 현장이라는 뚜렷한 시대적·공간적 간극이 존재하지만, 서양 학자의 눈으로 재구성된 『중용』의 구조와 의미망을 참조함으로써, 『사제편』이 선택한 『중용』 구절과 그것이 기대고 있는 4대지설·6대절설의 분절 인식이 어떤 지점에서 공명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II. 『사제편(思齊篇, 1521)』의 구성과 인토르체타의 『중용(1687)』

사제당(思齊堂) 안처순은 『기묘제현수첩(己卯諸賢手帖)』으로 잘 알려져 기묘명현이다. 사제당은 문성공 안珦(安珦, 1243-1306)의 직계 후손으로, 1513년 진사에 합격하였고, 1516년부터 홍문관정자 겸 경연관 그리고 춘추관기사관으로 선발되어 조정에서 활동하였다. 1518년에 구례현감에 제수되어 그 다음 해 일어난 기묘사화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지는 않았지만, 기묘사화 직후 유배지에 간 기묘명현들을 찾아다니며 동료들의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함께 겪었다. 『기묘제현수첩』은 기묘 사화 이후 화를 입은 동지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놓은 것이다. 총 39 통의 친필 서간이 실려있는데, 정암(靜庵) 조광조나 자암 김구(自庵 金穎, 1488~1534) 등 당대 최고 문인들의 친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문화유산이다.

경학사적으로 사제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근사록(近思錄)』을 간행한 것이다. 1519년 기묘년 여름에 봉성정사에서 『근사록』이 간행되었지만, 그해 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근사록』은 『소학(小學)』과 더불어 바로 금서로 지정되었고, 사제당에게도 다른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신사무옥(辛巳諫獄)<sup>3)</sup>이 일어난 1521년, 안처순은 강학 공간으로 사제당(思齊堂)을 지었고, 동시에 '사제당'을 자신의 호로 삼았다.<sup>4)</sup> 그리고 사제당에서 강학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직접 여러 경전의 글들을 모아 『사제편(思齊篇)』을 편찬했다. 사제당은 『사제편』을 교재로 삼아 후학들을 양성했을 것이다. 1820년이 되어서야 사제당의 저술과 문헌들을 모아 『사제선생실기』를 간행했는데, 「세계(世系)」, 「연보(年譜)」, 「저술(『사제편』 상·하)」과 「사제당제영(思齊堂題詠)」 등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권5에는 『기묘제현수첩』의 모각본도 실려있어서 『기묘제현수첩』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521년 완성된 『사제편』은 사제당이 사서(四書)의 문장들을 가려 뽑

3) 신사무옥(辛巳諫獄)은 안처겸(安處謙)과 그의 아버지 안당(安塘)이 역모죄로 거짓 고변당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안당과 그의 아들들이 처형당했지만, 안당의 손자 안료(安璐)가 억울함을 상소하였고, 최종적으로 안당의 역모가 허위로 밝혀졌다.

4) '사제당(思齊堂)'은 『논어』〈이인편〉의 "견현사제(見賢思齊: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에서 가져온 당호이다.

아 만든 성리학 교재이다. 유교 경전에서 문장들을 취해서 독자적으로 편찬한 책은 『사제편』이 조선에서 최초라 할 수 있다. 사서(四書)의 문장과 주석을 선택하고 편집한 수준도 탁월했고, 주자의 주석을 그대로 옮긴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학문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편집 구성을 보여준다. 『근사록』과 『사제편』의 공통점은 사서를 중심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상이하다. 『사제편』은 상·하권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권은 '위학(爲學)' 편으로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편은 '효친(孝親)'부터 '상우(尙友)'까지 18개의 편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편에는 한 장 또는 몇 개의 장들이 배속되어 있다. 『근사록』의 권제목과 『사제편』의 편제목은 '위학'이라는 제목만 겹친다. 『사제편』은 대부분 사서에서 직접 가져온 문장들이다. 『사제편』의 출처는 빈도순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서 내	『논어』 27개, 『맹자』 16개, 『중용』 4개, 「중용장구서」
사서 외	「서명」, 『주역』 1개, 『이정전서』 1개

〈『사제편』의 출처〉

위 표에서와 같이 『사제편』은 『논어』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였는데 (27개 문장), 다음으로 『맹자』에서 16개 문장을 인용했고, 『중용』의 4개 문장과 주희의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까지 실었다. 사서 중에서 『대학』의 문장은 전혀 가져오지 않은 것은, '군주학(君主學)'이 아닌 '군자학(君子學)'을 지향하는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세기 이후 저술된 퇴계(退溪)의 『성학십도(聖學十圖, 1568)』와 율곡(栗谷)의 『성학집요(聖學輯要, 1575)』이 경(敬)이라는 핵심주제와 『대학』 체계를 바탕으로 '성학(聖學)'을 표방하며 군주학을 논한 것에 비해, 『사제

편』은 『대학』보다 오히려 『중용』에 더 관심을 가지며 군자학을 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제편』에 인용된 『중용』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사제편』 상편은 모두 '위학'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편성되었지만, 하편은 '효친(孝親)'부터 '상우(尙友)'까지 18편으로 주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인용한 문장들은 『사서대전(四書大全)』에서 원용한 글이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논어』나 『맹자』의 문장을 적고, 바로 밑에 주희의 『사서집주(四書集註)』 주석을 붙여놓았다.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부주(附註)'를 붙였는데, 사제당이 『사서대전』에서 직접 선별하여 엮은 주석들이다. 사제당은 경연관을 수년 동안 역임했기 때문에, 『사서대전』을 비롯한 여러 성리학 문서들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사제편』에서는 사서(四書)의 원문만 발췌하거나, 『사서집주』의 주석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서대전』에 있는 주석들까지 '부주'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제편』에 인용된 『중용』을 문장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대조 문헌으로 인토르체타의 『중용』의 번역서를 활용한다. 현재 라틴어로 번역된 사서 중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번역되었기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라틴어 『중용』의 번역자 인토르체타(Intorcetta, 殷鐸澤, 1652-1696)는 예수회 선교사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태어나, 필립 쿠플레(Philippe Couplet, 1623-1693)와 함께 1659년 중국에 들어갔고, 이 해에 항주 성당을 건축하기도 했다. 인토르체타의 여러 업적 가운데 학문적으로 눈길을 끄는 것은 『사서』의 번역을 기획하고 직접 출판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기획은 필립 쿠플레에 의해서 1687년 라틴어로 출간된 『중국인 철학자 공자 Confucius Sinarum Philosopher』로 완결되었다. 이 중에서 라틴어 『중용』은 인토르체타가 직접 번역한 것이

다. 번역자 안재원은 인토르체타의 『중용』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라틴어 『중용』에 나타나는 인토르체타의 독법은 방법론적으로 세 특징을 띠고 있다. 하나는 『중용』을 서양 고대 철학에 기대어 읽고 해석했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 『중용』을 번역하면서 키케로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중용』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 인토르체타는 서양 독자들에게 “중용”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해 라틴어 『중용』 텍스트를 일종의 건축물로 구조화해서 조직한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중용” 개념은 라틴어 『중용』 텍스트의 기본 토대에 해당한다. “중용”이라는 토대 위로 4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인간론, 귀신론, 도론, 덕론이 그것들이다. 4개의 기둥을 덮어주는 개념들이 “성(誠)과 성(聖)”이다. 이렇게 세운 건축물 안에 세 개의 방을 둔다. 각각의 방에 군자론, 군주론, 성인론을 배치해 놓는다. 이것이 라틴어 『중용』 텍스트의 기본 구조이다.<sup>5)</sup>

주자의 『중용장구』에 대해서는 조선 경학사에서 『대학장구』만큼 개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분장(分章)과 분절(分節)에 대한 논란을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추세이다.<sup>6)</sup> 주자가 『예기』에 있던 『중용』 한 편을 33장으로 분장한 것에 대해서는 소위 ‘애공장’이라 불리는 20장이 다른 장에 비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 경학에서 주자의 33장 분장설은 기본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3장을 다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선에서도 크게 독중용법(讀中庸法)에 근거한 4대지(大旨)과 장하주(章下註)에 근거한

5) 안재원 역,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2020)』, 39-40쪽.

6) 신정근은 『중용이란 무엇인가』에서 8대절을 제시하고 있다. 『중용』의 분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6대절(大節)로 나누어졌으면서도, 제3의 구조를 제안하는 학자들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성호 이익의 경우는 마치 『대학장구』와 같이, 『중용』을 2장부터 11장까지 공자의 경(經)으로, 나머지는 자사가 부연한 전(傳)으로 나누기도 했고, 다산 정약용의 경우는 분장 없이 59절로 나누기만 했다. 인토르체타의 『중용』의 경우, 4대지설과 6대절설 어느 쪽에도 분류될 수 없게 31편으로 분장되어 있다.

### III. 『사제편』 상(上): 『중용』 20장과 「중용장구서」

#### 1. 상편 5장: 『중용』 20장

『사제편』에 인용된 『중용』 문장은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를 포함해 5개이다. 상편에 2개, 하편에 3개인데, 아래의 표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상편 5장	20장
상편 14장	중용장구서
하편-5 〈부부〉 1장	12장
하편-5 〈부부〉 2장	15장
하편-18 〈소환난〉 1장	14장

『사제편』 상편은 모두 ‘위학’이라는 주제로 15개 문장으로 구성되었고, 하편은 ‘효친(孝親)’부터 ‘상우(尙友)’까지 18개의 주제로 총 36개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상편의 마지막 15장에 장횡거의 「서명(西銘)」이 배치되어 있는 것과 바로 앞 14장에 「중용장구서」를 넣은 것이 특징이

다. 그리고 상편에는 이 두 개의 글 외에 『논어』 6개, 『맹자』 5개, 『중용』 1개, 『주역』 1개의 문장으로 엮었는데, 상편 5장에서 『중용』 20장을 배치했다.<sup>7)</sup> 『중용』의 다른 문장보다 가장 먼저 『중용』 20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사제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중용』의 문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선의 경학(經學)에서 특히 『중용』과 관련된 '중용학(中庸學)'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sup>8)</sup> 조선의 '중용학'은 크게 논변학(論辯學)과 도설학(圖說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학풍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중용장구』를 크게 어떻게 나누어 보는가라는 '분절(分節)'에 대한 문제이다. 이 분절설에는 크게 『중용장구』 장하주에 근거한 4대지설과 「독중용법」에 근거한 6대절설이 있는데, 조선의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설을 택하거나, 두 가지의 설을 절충하거나, 두 가지의 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분절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처음에 「독중용법」의 6대절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한원진 이후 6대절설을 주자의 초년설로 보아 폐기하고, 장하주의 4대지설을 만년의 정설로 보게 되었다. 두 가지 분절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7) 소위 '애공장(哀公章)'이라는 별칭로도 불리는 『중용』 20장은 『공자가이』와 내용이 겹치기도 하는데, 다른 장에 비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주자가 이 20장을 한 장으로 놓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8) 이언적의 『중용구경연의』도 『중용』 20장에 관한 해설서이다.

1대지	1-11장	중용(中庸)
2대지	12-20장	비은소대(費隱小大)
3대지	21-32장	천도인도(天道人道)
4대지	33장	일편지요(一篇之要)
1대절	1장	중화(中和)
2대절	2-11장	중용(中庸)
3대절	12-19장	비은(費隱)
4대절	20-26장	성(誠)
5대절	27-32장	대덕(大德) · 소덕(小德)
6대절	33장	중화(中和)

〈4대지설과 6대절설<sup>9)</sup>〉

표를 자세히 보면, 4대지설의 1대지와 6대절설의 1 · 2대절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4대지설의 마지막 4대지와 6대절설의 마지막 6대절 역시 동일하다. 결국 차이는 4대지설의 2 · 3대지와 6대절설의 3 · 4 · 5대절인데, 여기 핵심은 20장의 소속이다. 4대지설에서는 ‘비은소대(費隱小大)’ 대지의 마지막 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6대지설에서는 3대절의 ‘비은(費隱)’ 대절이 아니라, 4대절의 ‘성(誠)’ 대지로 분류되었다. 4대지설이나 6대절설은 모두 주자가 제안했던 분절설이었지만, 20장의 중심 주제를 ‘비은소대’와 ‘성’으로 각각 다르게 보았다는 차이가 있다. 『사제편』에서는 상편 5장에서 바로 이 『중용』 20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소위 ‘애공장’으로 불리는 가장 긴 문장을 다싣지는 않고, 『중용장구』 체제에

9) 「독중용법(讀中庸法)」, 『중용』은 마땅히 여섯 개의 큰 절(節)로 나누어 보아야 하니, 수장(首章)이 이 1절이니 중화(中和)를 말하였고, ‘군자중용(君子中庸)’로부터 이하 열 장이 이 1절이니 중용을 말하였고, ‘군자지도비이은(君子之道費而隱)’ 이하 여덟 장이 이 1절이니 비은(費隱)을 말하였고, ‘애공문정(袁公問政)’ 이하 일곱 장이 이 1절이니 성(誠)을 말하였고, ‘대재성인지도(大哉聖人之道)’ 이하 여섯 장이 이 1절이니 대덕(大德) · 소덕(小德)을 말하였고, 끝 장이 이 1절이니 다시 수장의 뜻을 거듭 말하였다.”

서 21구(句) 중에서 19구부터 마지막 21구의 문장만 취하고 있다. 『사제편』 상편 5장에서 인용한 『중용』 20장 원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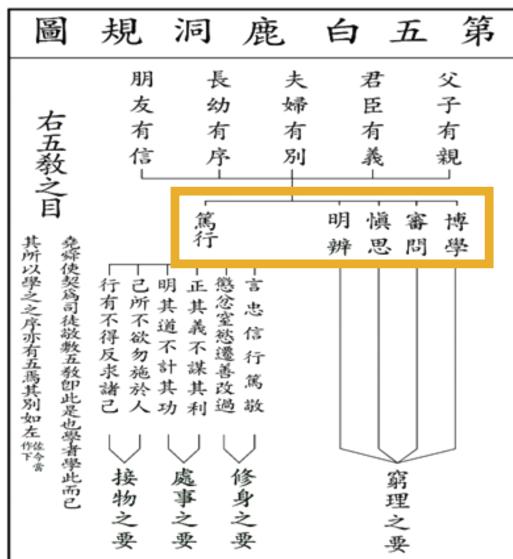
『중용』에서 말하길, “이것을 두루 배우고, 깊게 묻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며, 굳건하게 실천해야 한다. 배우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고, 능력이 모자르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묻지 않은 것이 있으면 물어야 하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생각해야 하고, 얻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분별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분별하고, 어두운 것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행해야 하고 굳건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다면 나는 백 번을 해서라도 행하고, 남이 열 번에 할 수 있으면 나는 천 번을 해서라도 행해야 한다. 이 도를 행할 수 있으면 비록 어리석으나 반드시 밝아지며, 비록 유약하나 반드시 강해진다.”<sup>10)</sup>

中庸曰，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篤行之。有弗學，學之，弗能，弗措也。有弗問，問之，弗知，弗措也。有弗思，思之，弗得，弗措也。有弗辨，辨之，弗明，弗措也。有弗行，行之，不篤，弗措也。人一能之，己百之，人十能之，己千之。果能此道矣，雖愚，必明，雖柔，必強。

『사제편』에서 『중용』 20장을 인용하면서 가장 마지막 세 구를 인용한 것은 사제당의 건립 취지에 부합한다. 이것은 주자가 작성한 ‘백록동규(白鹿洞規)’에서도 인용된 문장이다. ‘백록동규’는 주자가 남강군의 지사로 부임하면서 재건한 ‘백록동서원’의 학규(學規)이다. 그리고 이 ‘백록동규’를 퇴계가 직접 도식화하여 1568년 선조에게 올린 『성학십도』의 다섯 번째 그림으로 배치했다. 그림은 다음과 같다.

---

10) 이 글에서 옮긴 『사제편』의 인용문들은 향후 출간될 『사제편』 공동역자들(필자를 포함한)의 번역문이다.



〈퇴계의『성학십도』 중 제5도 백록동규도〉

주자의 백록동규를 바탕으로 만든 퇴계의 백록동규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제일 위에는 오倫(五倫)이 있고, 중간 부분에 바로 오교(五教)를 놓았는데, 바로 오교의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慎思), 명변(明辯), 독행(篤行)”이 『중용』 20장에서 인용된 것이다. 퇴계는 49세(1549)에 풍기군수로 부임하였는데, 문성공 안향을 배향하던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을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만들어 서원 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백운동서원 이전에 사제당이 1520년에 세워졌고, 그 교재로 『사제편』이 활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중용학 측면에서도 『성학십도』에 3도 『소학도』와 4도 『대학도』를 넣었으면서도 『중용』의 내용만으로 만든 도설은 넣지 않은 반면에, 11) 『사제편』에

11) 『성학십도』 제6도 ‘심통성정도’는 실제로 『중용』 1장의 미발이발론을 도식화한 것이다.

서 『중용』 문장을 직접 인용했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 퇴계의 『성학십도』가 양촌 권근(陽村 權近, 1352-1409)에 이은 『중용』에 대한 조선의 도설학의 전통을 이어갔다면, 『사제편』은 논변학의 전통을 세워 나갔다고 대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제편』의 논변학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중용』 20장 19구에 대한 인토르체타의 번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선을 고르고 굳세게 붙잡기 위해서는 다섯 법칙을 지켜야 한다. 1 만물의 원리와 원인과 일치를 띠엄띄엄, 잠깐잠깐이 아니라 충실하고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즉 단단한 완성에 도달하고자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2 사실 배운 것들 가운데에서 간혹 아직 모르는 것이 있고 또한 당연히 모르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으므로 물어야 할 것을 미리 검토하고 각각을 따지고 이것에 대해서 현인들과 조예가 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 할지라도, 넘침과 모자람으로 인해 쉽게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느슨하게 해서는 안되고 노심초사의 긴장과 열성을 다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며 각각을 해아려야 한다. 4 여기에 뒤죽박죽이 아니라 사물들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5 결론적으로 이것들을 다 이룬 다음에 거짓이 아니라 단단하고 일관적으로 행해야 한다. 즉 자신이 마음 속으로 미리 정해 놓은 일을 완성해야 한다.<sup>12)</sup>

『사제편』은 논변학의 전통에서 편집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먼저 사서의 원문, 다음으로 집주 또는 장구의 주석을 넣고, 마지막으로 '부주'로 집주대전 또는 장구대전의 주석까지 소개하고 있다.<sup>13)</sup> 여기서 『중용』

---

12) 안재원 역,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2020)』, 306쪽.

13) 『중용장구서』와 『서명』까지도 부주를 넣었지만, 『이정전서(二程全書)』에서는 '부주'가 없다.

20장의 첫 번째 집주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주자가 말하길, “이것은 ‘성(誠)’을 이루는 과정에 대한 대목이다. ‘박학’, ‘심문’, ‘심사’, ‘명변’은 좋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지’를 이룬다. 배워서 아는 것이다. ‘독행’은 이것을 굳건하게 쥐는 것으로 ‘인’을 이룬다. 이롭게 여겨 실천하는 것이다.”

朱子曰<sup>14)</sup>，此，誠之目也。學問思辨，所以擇善而爲知。學而知也。篤行，所以固執而爲仁。利而行也。

여기서 사제당의 분절에 관한 입장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4대지설에서 20장은 ‘비은대소’로 분류되었지만, 6대절설에서는 ‘성(誠)’으로 분류했다. 이 주석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서 『사제편』에서는 6대절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중용장구대전』에서 인용한 ‘부주’의 경우 『사제편』에서는 더욱 선별하여 실었는데, 쌍봉요씨의 주석으로 ‘성’을 중심으로 본 입장이 더 강화된다.

쌍봉 요씨가 말하길, “배움이란 넓게 해야만, 천하의 견문을 취합하여 사물의 이치를 두루 알 수 있다. …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여 얻는 것이 그 참됨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잡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배워서 알고 이롭게 행하여 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雙峯饒氏曰，學必博然後，有以聚天下之見聞，而周知事物之理。… 凡學問思辨之所得者，皆有以踐其實矣。所執如此，其固爲何如。此學知利行，以求至於誠者之事也。

---

14) 朱子曰: 『영락대전 사서집주 중용』에는 ‘朱子曰’이 없는데, 다른 학자들과의 구별을 위해 넣은 듯하다.

## 2. 상편 14장: 「중용장구서」

『사제편』 상에서는 ‘위학(爲學)’이라는 제목으로 15개의 문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13장까지는 사서에서 인용한 문장이지만 14장은 「중용장구서」를, 15장은 「서명」을 배치하고 있다. 퇴계가 『성학십도(1568)』에서 「서명도(西銘圖)」를 두 번째로 배치한 것과 이듬해 「서명고증강의(西銘考證講義, 1569)」를 남긴 것, 그리고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의 『하서집(河西集)』에 제목만 남아있는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1557)」가 조선 서명학(西銘學)의 기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술된 『사제편』 상편의 마지막 15장에 「서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과 사제당이 『근사록집해』의 주석<sup>15)</sup>까지 수록했다는 것도 조선 서명학에 있어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중용장구서」를 상편에 배치한 것도 조선 중용학, 특히 논변학 전통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서명」에 대해서도 『서명해(西銘解)』의 주석까지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자의 「중용장구서」 원문만 넣은 것이 아니라, 『중용장구대전』의 세밀한 주석까지 ‘부주’로 수록했기 때문이다. 『중용장구대전』의 주석들 역시 선별적으로 수록되었는데, ‘부주’의 특징은 15개의 주석을 붙였는데, 이 중에 호병문(胡炳文, 1250-1333?)의 9개 주석을 붙였다는 것이다. 「중용장구서」 ‘부주’의 첫 번째 주석과 마지막 주석은 다음과 같다.

운봉 호씨가 말하길, “당우삼대(唐虞三代)의 융성할 때에는 우리의 도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듯하여 《중용》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공자의 시대에 이르러 ‘이단을 공부한다(攻乎異端)’라는 주장이 나왔다.

---

15) 『근사록집해』에 달려있는 주석은 주자가 「서명」에 대해 주석한 『서명해(西銘解, 1172)』의 해설이다.

그러나 이단이 아직 크게 성행하지는 않았다. 자사(子思)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걱정은, 이단이 멋대로 활개를 쳐서 도학이 이어지지 못할까 를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雲峯胡氏曰, 唐虞三代之隆, 斯道如日中天, 中庸可無作也. 至孔子時, 始曰, 攻乎異端, 然其說猶未敢盛行. 至子思時, 則有可憂者矣. 憂異端之得肆其說, 所以憂道學之不得其傳也.

운봉 호씨가 말하길, “집중(執中)’ 두 문자는 요임금이 말씀하셨고, ‘시중(時中)’ 두 문자는 공자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도가 중에 맞지 않으면 이단의 도이지 요순의 도가 아니며, 중이 때에 맞지 않으면 자막(子莫)의 집중이지 요순의 집중이 아니다.”

雲峯胡氏曰, 執中二字, 堯言之, 時中二字, 夫子始言之. 道不合乎中, 異端之道, 非堯舜之道, 中不合乎時, 子莫之執中, 非堯舜之執中.

두 개의 인용문을 통해 단순히 호운봉의 주석을 많이 인용한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중용 논변학 전통에 있어서 『사서대전』의 세밀한 주석까지 풍성하게 소개함으로써 초학자뿐만 아니라, 경연관 수준의 텍스트를 편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대의 학자 회재 이언적의 『대학장구보유(1549)』가 조선 대학 경학에서 논변학의 전통을 열어준 것과도 비교될 만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중용도설학은 양촌 권근의 『입학도설(入學圖說)』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입학도설』 권1은 「중용수장분석지도(中庸首章分釋之圖)」로 『중용』 1장만 다루고 있다. 이후로도 『중용』 1장을 중심으로 도설학 전통이 이어졌고, 『성학십도』 제6도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도 역시 실제로는 『중용』 1장에서 파생된 도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용장구서」와 관련된 도설로, 김근행(金謹行, 1712-1782)의 「서분절도(序分節圖)」가 중용도설학에서 주목할 만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sup>16)</sup>

## IV. 『사제편』 하(下): 『중용』 12장, 15장, 14장

### 1. 4편 부부(夫婦): 『중용』 12장과 15장

『사제편』 하편은 총 18편인데, <1편 효친(孝親)>부터 <6편 봉우(朋友)>까지는 기본적인 오륜 다섯 편에 <3편 사사(事師)>가 추가된 것이다. <3편 사사>에 이어지는 것이 <4편 부부(夫婦)>인데, 여기에서 『중용』 12장과 15장을 인용하고 있다. <6편 봉우> 경우, 『소학』의 ‘명봉우지교(明朋友之交)’ 편과 『명심보감(明心寶鑑)』 ‘교우(交友)’ 편에서 한 개씩 겹쳐지는 문장이 있었는데, <4편 부부>의 경우 『소학』의 ‘명부부지교(明夫婦之交)’ 편이나 『명심보감』의 ‘부행(婦行)’ 편과 겹쳐지는 문장이 전혀 없다. <4편 부부>에서 먼저 인용되는 『중용』 12장 원문은 다음과 같은데, 12장의 첫 번째 구(句)가 아닌 네 번째 구만 인용하고 있다.

《중용》에서 말하길, “군자의 도(道)는 그 실마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비롯하지만, 그 지극함은 하늘과 땅에서 드러난다.”

中庸曰，君子之道，造端乎夫婦，及其至也，察乎天地。

『대학』의 군주론보다는 『중용』의 군자론적 성격이 더 강한 『사제편』에서 『중용』 12장을 통하여 부부 관계에 근거한 군자의 도를 논하고 있는데, 『중용』 12장은 “군자지도 비이은(君子之道費而隱)”으로 시작하여, 4대지설이든 6대절설이든 공통적으로 두 번째로 주제인 ‘비은(費隱)’으로 특징되는 문장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 구를 인용하여 ‘부부’의 도를 논하고 있다. ‘부부’ 편에서는 다른 편과는 다르게 『중용

---

16)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도설(2013)』, 263쪽.

장구』의 주석은 달지 않았고, 바로 『중용장구대전』의 ‘부주’만 달았다.

주자가 말하길, “군신과 부자 사이에 있는 관계는 일상생활에서 다 드러나 있다. 부부 관계를 주목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가장 내밀한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朱子曰. 君臣父子. 人倫日用間. 無所不該. 特舉夫婦而言. 以見其尤切近處.

부부는 인간 관계 중에서 지극히 가깝고 지극히 내밀한 관계이니,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와 형제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그 아내에게는 다 말한다. 이는 사람의 일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지만, 그 사이에도 도(道)가 작동한다. 변화의 깊새를 알아차리고 홀로 있을 때에도 신중하게 행하는 군자가 아니라면, 누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夫婦. 人倫之至親至密者也. 人之所爲. 蓋有不可以告其父兄. 而悉以告其妻者. 人事之至近. 而道行乎其間. 非知幾謹獨之君子. 其孰能體之.

이 문장에 대한 인토르체타의 번역도 비교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내가(아마도 자사) 말했듯이, 이상적인 군자의 법칙은 중을 지킴에 있어서 그 시작을 아주 작게 남편과 아내에서 잡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을 지키는 이상적인 군자의 덕성 혹은 법칙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내려 있고, 또한 그 시작을 평범한 백성에 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 덕이 자신을 더할 수 없는 정상에 까지 펼쳐지는 한, 혹은 만약 우리가 그 지극한 정상에서 내려간다면, 그 덕은 멀고 넓게 빛나고 하늘과 땅에 골고루 분명하게 서 있다. [자사는 위에서 말한 것을 밝힌 뒤에, 이성의 법칙과 이성에 일치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이것을 이어지는 공자의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sup>17)</sup>

---

17) 안재원 역,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2020)』, 155쪽.

‘부부’ 편의 두 번째 문장 역시 4대지설과 6대지설 구분 없이 두 번째 주제에 속하는 문장이다. 앞에 문장에 이어 ‘비은’ 주제가 이어지는데, 『시경』을 인용한 『중용』의 15장의 두 번째 구이다.

『시경』에서 말하길,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은, 거문고와 가야금을 타는 것과 같다. 형과 아우가 마음이 잘 맞으면 어울림의 즐거움이 더욱 넘친다. 너의 집을 잘 다스리고 너의 아내와 자녀를 즐겁게 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모는 이것으로 집안을 다스린다.”

詩曰，妻子好合，如鼓瑟琴。兄弟既翕，和樂且耽。宜爾室家，樂爾妻孥。子曰，父母其順矣乎。

여기에는 『중용장구』의 주석도 달려있지만,<sup>18)</sup> ‘부주’에 소개된 『중용장구대전』의 주석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안진씨가 말하길, “형과 아우, 아내와 자녀의 사이에 벌어지는 일상의 일들에도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니, 가볍고 가까운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고상하고 원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 (맹자가) ‘요순의 도란, 바로 효도와 우애를 가리킨다’라고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자사(子思)가 『시경』과 『시경』을 예찬한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우연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가리킨 것이다. ‘가볍고 가까운 곳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은 『시경』의 말한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함을 가리킨 것이다.”

新安陳氏曰，兄弟妻子之間，日用常行之事，道無不在，不可忽其卑近。雖高遠實自於此。堯舜之道孝悌而已，正此意也。子思引詩及夫子贊詩語，蓋偶指一事而言，非以自邇自卑之義，爲止於此詩所云而已也。

18) 『중용장구』 “朱子曰，詩，小雅常棣之篇。鼓瑟琴，和也。翕，亦合也。耽，亦樂也。孥，子孫也。” “夫子誦此詩而贊之曰，人能和於妻子，宜於兄弟如此，則父母其安樂之矣。”

15장 두 번째 구에 대한 인토르체타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어서 비슷한 방식으로 가족과 가정에 대한 논의가 뒤따른다. 자사는 우선 《시경》, 이어서 공자의 권위에 의지해서 자신의 말을 설명한다. 《시경》에 말하길, 네 아내와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은 마치 마주쳐 소리를 내는 심벌즈와 같이 집안의 평화와 한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달콤한 즐거움을 누린다. 음악에서 선창에 후창을 하듯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호응한다면 말이다.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형과 나이 어린 동생의 마음이 서로 맞으면, 한마음에서 오는 이들의 기쁨은 언제나 오래 이어지며 자식과 손자 대에도 지속된다. 이렇게 하면 집안과 가족의 질서는 바르게 잡힌다. 그뿐만 아니라 네 아내와 자식과 손자가 흥겨워한다.<sup>19)</sup>

마찬가지로 공자가 말한다. 가족의 부모가 바로 자신들이 만든 가정에서 화목하며 즐거워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랫 사람이 서로 한마음을 가지면, 예를 들면, 며느리와 사위와 형제와 자매가 한마음을 가지면, 이에 부모와 나이가 많은 어른이 기뻐한다. 진실로 덕의 길에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펼쳐져 있다.<sup>20)</sup>

---

19) (미켈레 루제리의 번역) 《시경》에 이르길, 부인과 아이들이 진심으로 즐거워한다면, 그들은 마치 현과 나무(아마도 거문고)가 내는 소리와 같다. 형과 아우가 한마음을 이루면, 즐거움과 화합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당연히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온집인이 행복해진다.

20) (미켈레 루제리의 번역) 공자는 말한다. 부모가 아주 평온하게 즐거워한다. 나중에 이들에게서 떨어져 멀리 있는 사람들도 부모처럼 따른다. 이에 대한 견해이다. 한 마음이 가족의 시작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 이어서 형과 아우의 사랑이 뒤 따른다. 이로부터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한마음의 열매는 배우자와 부모들에 이른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테면 더 떨어져 있고 더 멀리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른다. 공자의 말이다. 이는 부부가 서로 화합해서 평온하게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

## 2. 17편 소환난(素患難): 『중용』 14장

『사제편』 하편의 마지막에는 <18편 상우(尙友)>가, 바로 앞에는 <17편 소환난(素患難)>이 배치되어 있다. 마지막에 『맹자』의 '상우'를 인용하며, 앞선 현실적인 '봉우' 관계가 기묘사화로 인해 망가졌지만 옛 성현을 벗으로 삼아 이상적인 '봉우'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기묘명현이라는 벗들은 기묘사화로 환난을 당했고 사제당 자신도 환난을 당했었는데, 그 환난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법을 <17편 소환난>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17편 소환난>은 <15편 대소인(待小人)>과 <16편 안빈(安貧)>에 이어지는데,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처하는 지혜로운 격언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용에서 말하였다. “군자는 그 상황에 따라 행하고, 그 밖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부귀하면 부귀한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처지에 따라 행동한다. 오랑캐들의 가운데에 있으면 그에 알맞게 처신하고, 환난의 가운데에 있으면 그에 따라 처신한다. 따라서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은 적이 없다.”

中庸曰，君子素其位而行，不願乎其外。素富貴，行乎富貴，素貧賤，行乎貧賤。素夷狄，行乎夷狄，素患難，行乎患難。君子無入而不自得焉。

『중용』 14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16편 '안빈' 편과 연결시키면, 가난한 처지에 대한 지혜로 볼 수 있지만, 기묘사화를 염두에 두면 핵심은 '환난'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법에 대해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도 『중용장구』 주석은 옮기지 않았고, 『중용장구대전』의 주석만 옮겼다.

북계 진씨가 말하기, “군자는 가는 곳마다 스스로 만족하지 않음이

없으니. 오직 그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에 따라 행할 뿐이다.”

北溪陳氏曰, 父子無所往而不自得, 惟爲吾之所當爲而已.

조금 더 충실한 해설은 인토르체타의 번역을 통해서 보충하고자 한다.

이 대목에서 자사는 이상적인 군자는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을 논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상적인 군자는 자신이 처한 현재의 처지에 맞추어 행한다. 이상적인 군자는 자신의 처지에 맞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는다.<sup>21)</sup>

만약 부와 명예를 지니고 있으면, 부자와 명예로운 사람으로 처신한다. 그럼에도 음탕한 욕망과 사치를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또한 거만하고 오만하게 굴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만약 가난하고 무명의 처지에 있어도, 진중하고 올바른 사람에게 어떤 부당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만약 이방인으로 나라 밖에 머문다면, 이방인으로 행동한다. 혹은 이방인들과 살아야 하는 사람의 처지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한다. 자신의 것을 언제나 한결같이 지킨다. 만약 재난과 고난에 처해 있다면, 재난의 상태에 맞추어 행하지만, 원래 마음먹은 위대함을 언제나 굳건하게 지킨다. 따라서 이상적인 군자는 자신이 살면서 처한 어떤 처지에서도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닌 적이 없고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않은 적이 없다. [자신이 뜻하는 대로 뜻하는 바를 이룬다.]<sup>22)</sup>

21) (미켈레 루제리의 번역) 군자는 언제나 주어진 현재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밖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욕망하지 않는다.

22) (미켈레 루제리의 번역) 부유하면, 이상적인 군자도 부자로 그리고 대인으로 산다. 가난하고 미천하면, 가난하고 겸손하게 산다. 외국인과 이방인의 지역에 살면, 외국인과 이방인으로 산다. 슬픔과 재난이 닥치면, 슬퍼하고 재난을 견디며 산다. 따라서 이상적인 군자는 언제나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평안을 구하고 즐거워한다.

## V. 나가는 말

이 글에서는 기묘명현 안처순의 『사제편』에 인용된 『중용』 구절들과 그 편제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 번역과의 대조를 통해 조선 전기 중용학의 한 양상을 드러내고자 했다. 『사제편』은 사서 가운데 『대학』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논어』·『맹자』와 더불어 『중용』 본문과 「중용장구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군주학이 아닌 군자학 중심의 경학 교재라는 성격을 분명히 한다. 특히 상편 5장에 배치된 『중용』 20장과 상편 마지막 부분의 「중용장구서」, 그리고 하편 '부부'·'소환난' 편에 배치된 12·15·14장은, 4대지설과 6대질설이 교차하는 지점 가운데서도 '성(誠)'과 '일상적 인륜 질서'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선택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사제편』이 『사서집주』의 주석에 더해 『사서대전』의 세밀한 주석들을 부주(附註)로 엮어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안처순 자신의 독자적 논평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은, 경연관으로서 축적한 경학 지식을 교재 편집이라는 형식 속에 은근히 녹여낸 조선 전기 학인의 한 작업 방식을 보여준다. 인토르체타가 『중용』의 구조를 인간론·도론·덕론·성론으로 재구성하고, 키케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틀 속에서 '중용'을 설명한 시도는, 동일 텍스트가 전혀 다른 지적 맥락에서 어떻게 다시 짜맞추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비교 축이 된다. 두 텍스트의 대조를 통해 우리는 『사제편』이 선택한 몇 개의 『중용』 구절들-학문하는 군자의 자세(20장), 부부 관계에 구현된 도(12·15장), 환난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태도(14장)-이 단순한 윤리 교훈을 넘어, 기묘사화 이후의 '환난'과 '안분'의 문제를 둘러싼 사림의 자기 규율과 깊

이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사제편』에 나타난 『중용』 수용은, 조선 전기 사람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군자학의 학습 규범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정식화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사제편』을 회재의 『대학장구보유』, 퇴계의 『성학십도』, 율곡의 『성학집요』, 그리고 이후 전개되는 중용 도설학 전통과 체계적으로 비교한다면, 16세기 전후 조선 경학이 '대학-중용' 체계를 둘러싸고 구축한 내부 위계와 관심의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예수회 학자들의 라틴어 사서 번역 전통과의 비교를 확장한다면, 『중용』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매개로 동아시아 성리학과 서양 고전철학이 교차하는 보다 넓은 지적 지도 역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安處順, 『思齊篇』, 국회도서관.
- 주희, 『중용장구』, 동양고전종합DB.
- 권근, 『입학도설』, 한국고전종합DB.
- 김근행, 『용재집』, 한국고전종합DB.
- 이황, 『성학십도』, 한국고전종합DB.
- 이익, 『칠경질서』, 한국고전종합DB.
- 정약용, 『중용강의』, 한국고전종합DB.
- 서경요(2009), 『조선조 유학자의 중용읽기』, 문사철.
- 신정근(2019), 『중용이란 무엇인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안재원 역(2020),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2020)』, 논형.
- 최석기(2013), 『조선시대 중용도설』, 보고사.
- \_\_\_\_\_, 강현진(2012), 『조선시대 대학도설』, 보고사.

## Abstract

# Sajedang (思齊堂) and Intorcetta's *Zhongyong* (中庸)

Uhm, Kook-hwa\*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Zhongyong* (中庸, The Doctrine of the Mean) is cited and received in *Sajepyeon* (思齊篇), compiled in 1521 by the Gimyomyeonghyeon (己卯名賢) scholar Ahn Cheosun (安處順, 1492-1534). It further compares these features with the Latin translation of the *Zhongyong* produced by the Jesuit missionary Prospero Intorcetta (殷鐸璽), in order to illuminat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rly-Joseon *Zhongyong* scholarship. *Sajepyeon*, prepared as a Confucian learning manual for students at the Sajedang Academy in Namwon, is notable for its complete omission of passages from the *Great Learning* (大學). Instead, it draws heavily on the Analects, Mencius, the main text of the *Zhongyong*, and the “Preface to the *Zhongyong* Chapter-and-Verse Commentary” (中庸章句序). This editorial choice marks the work as oriented not toward statecraft education (君主學) but toward the cultivation of the exemplary person (君子學).

Section II surveys the overall structure of *Sajepyeon* and its patterns of citation from the *Zhongyong*, placing them in contrast with the architectural structure of Intorcetta's Latin *Zhongyong*. Section III turns to the “On Learning” (爲學) section of the upper fascicle, analyzing the reception of *Zhongyong* chapter 20 and the *Zhongyong* preface, and thereby situating Ahn Cheosun within the broader Joseon tradition of doctrinal debate on the *Zhongyong*. Section IV investigates how *Zhongyong* chapters 12, 15, and 14

---

\* Research fellow, Institute of Humanit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E-mail: goocaa79@gmail.com

are mobilized within the lower fascicle's chapters on "Husband and Wife" (夫婦) and "Facing Hardship" (素患難), showing how the lived conditions and ethical concerns of the Gimyo scholars are reorganized through the lens of *Zhongyong* discourse.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rgues that the reception of the *Zhongyong* in *Sajepyeon* represents far more than a simple compila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 Rather, it reflects an attempt-simultaneously ethical and doctrinal-to interpret and apply *Zhongyong* learning amid the political turmoil and moral searching that characterized the early-Joseon sarim (士林).

### Key Words

*Zhongyong*, Ahn Cheosun, Sajedang, *Sejepyeon*, Intorcetta

논문접수일: 2025.12.08. 심사완료일: 2025.12.19. 게재확정일: 2025.12.30.

